

재수 대신 '반수' 택한 수험생 시작 전 휴학가능 여부 확인을

대학들 1학년 1학기 휴학 불가·2학기부터는 학교따라 달라 '학교반수' 신증 ... 이중등록 피하려면 2월 말까지 자퇴 처리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수험생들은 재수와 반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상태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의 경우 재수에 비해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학생들과 동시에 수험 준비를 하는 까닭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많다는 단점도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반수와 재수 사이에서 고민하는 수험생에게 우선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반수가 가능한 지 학칙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반수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대학의 휴학 가능 여부다.

모든 대학이 휴학이 가능한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보통 1학년 1학기는 휴학이 불가능하고, 2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홍익대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을 할 수 없다'고 학칙에 명시돼 있는데, 이런 경우 휴학 없이 학교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반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휴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게 진학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학교반수' (학사 경고를 감수하고 시험 준비하는 것)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휴학이 불가능해 '학교반수'를 선택했을 때 성공하면 문제가 없으나, 실패해 다시 돌아올 때는 이를 만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학은 재수강을 통해 성적을 정정할

수 있으나 최근 재수강 성적 상환을 두는 대학이 많아 학점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학교반수'는 시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선택하는 게 좋다.

또 자퇴를 하지 않고 정시에 지원하면 자퇴 '이중 등록'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중등록과 무관하기 때문에 걱정을 덜어도 좋다. 이중등록은 그 해 입시에서 합격한 대학을 2개 이상 등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반수생은 이중 학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입학할 경우 이중 학적에 해당돼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가 될 수 있다.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이중 학적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수생은 추가합격 이후인 2월 말일까지 자퇴 처리를 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붉가시·동백나무 '항동풍·항천식 효과' 입증 동신대 박대훈 교수, SCI급 논문 게재

지역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붉가시나무와 동백나무 잎의 추출물의 약리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동신대학교 박대훈 간호학과 교수가 붉가시나무 잎과 동백나무 잎 추출물의 항동풍·항천식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동신대(총장 최일)에 따르면 박 교수는 최근까지 '붉가시나무의 고요산혈증 관련 대사장애 효능 연구', '동백나무의 항동풍 및 항천식 효능 연구' 등을 목포대 약대학 학 조승식 교수,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오득실 과장과 함께 진행했다.

연구 결과 붉가시나무 잎의 추출물은 혈중 요산 수치를 감소시키고, 요산의 과

다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잔틴 산화 효소' (Xanthine Oxidase)를 억제시켜 고요산혈증과 고요산혈증 관련 대사 장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요산혈증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통풍 전 단계로 불린다.

동백나무 잎 추출물의 경우 비타민E 등 다양한 항동풍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중 요산 및 혈중-간의 '잔틴 산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액, 호산구 침윤, 상피 증식의 감소를 일으켜 천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박 교수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SCI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논문으로 게재했으며 동풍·천식 예방 및 치료용으로 만들 수 있는 특허(지식재산권)까지 확보했다.

이 외에 도라지와 산수유 혼합물의 천식조절제 규명, 황칠나무 기능성물질의 대량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구, 참바늘버섯의 안전성 확보와 면역조절기능 검증연구를 통한 신소재화 연구 등 전남지역 임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식·의약 소재를 발굴해 산업화에 기여하고 전남지역 임산 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도 지사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채용 특성화고·마이스터 출신 확대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공무원 채용에 특성화고·마이스터 출신의 기회를 확대한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행정 232명, 시설 14명, 전산 7명 등 9개 직렬에 총 316명 선발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특히 올해 공무원 채용

시 교육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도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응시자에게 임용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도내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채용 직렬을 기

존 시설, 공업, 보건, 해양수산에서 조리 직렬까지 확대해 선발키로 했다.

또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해 조리 직렬에서 도내 조리 관련 학과 우수 졸업(예정)자를 6월 중 5명 선발할 예정이다.

전산 직렬도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산 관련 학과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11월 말 7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는 민중들 십시일반으로 설립 ... 발전기금에 감사"



민영돈 조선대 총장이 3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대학 발전기금을 낸 조선대 동문, 지역 인사 등과 함께 대학발전기금 기탁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민영돈 총장

발전기금 기탁자에 감사패

조선대 동문과 지역의 각계 인사들이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3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조선대학교발전기금 기탁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 발전기금을 기부한

고액기탁자들에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조선대학교는 김광성 ㈜탑외국어사 대표이사, 문영래 문영래정형외과병원장, 박진열 ㈜동아-하이텍 대표이사, 박철성 ㈜아텍 대표이사, 박혜숙 조선대병원 청라임상회 회장, 안동규 조선대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유호진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이기업 피앤엘파트너스㈜대표이사, 장항준 영화감독, 장택규씨, 조형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하충식 한마음국제복지재단 이사장, 홍진후 ㈜유시스 대표이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선대 민영돈 총장은 "조선대는 어려운 시절에도 민중들이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하고자 했던 숭고한 의지로 십시일반 가진 것을 내놓으며 설립된 민립대학이다"면서 "기부금을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확산 포럼을 개최해 사업에 따른 성과를 교수와 학생 등 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동강대 제공>

동강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 'DU-창의융합형 미래 직업인 양성' 다짐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함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DU-창의융합형 미래 직업인 양성'에 힘쓰기로 다짐했다.

동강대 혁신지원사업단(단장 함수아)은 최근 여수 유담마리나호텔에서 '2019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확산 포럼'을 개최했다.

동강대는 2018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국고 지원을 받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동강대 교직원을 비롯해 2020학년도 총학생회 간부, 학생 서포터즈단도 참여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